



나태주



김형석



임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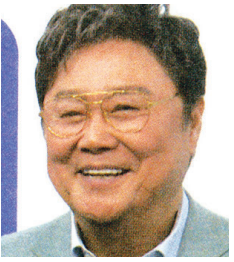
이세돌



김동규



현정화



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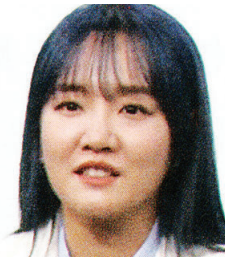
김연자



여경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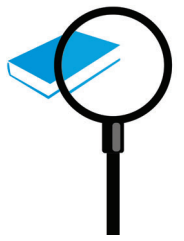


박준영



윤하

멈추지 않은 도전... 세상을 바꾸는 '핫피플'들의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이야기를 담다

김원경 외 지음

역사 이래로 사람을 정의하는 말은 많다. '만물의 영장', '생각하는 갈대' 등 다양한 언어로 표현돼왔다.

많은 정의 가운데 가장 많이 공감할 만한 게 있다. 바로 '사람은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건과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다른 뜻으로



도 해석된다. 사람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라는 말도 있다.

각각의 책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서사 재료들이 모여 직조된다. 책을 사람으로 치환하면, 이야기는 인생 스토리이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는 재료가 된다. 한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전제로 한다.

정현중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재 자체로서 존중해야 하는 이유다.

시인 나태주, 철학자 김형석, 가수 남진, 팝페라 테너 임형주, 바리톤 김동규, 탁구 감독 현정화, 가

수 윤하, 셰프 여경래 등은 저마다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이들이다. 많은 역경을 딛고 자신만의 독특한 서사를 써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의미 있는 스토리를 써가고 있다.

최근 발간된 '이야기를 담다'는 각 분야 '핫피플'들의 인생 서사를 정리한 책이다.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다. 매일경제TV '이야기를 담다'의 제작진이었던 김원경 PD를 비롯해 김수진 작가, 이담 아나운서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들 제작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던 각계 인사들을 '한 권의 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 인터뷰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남기기 위해 책을 펴냈다.

'꽃'의 시인 나태주는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하던 해 봄에 이상이 왔다. 갑자기 쓸개가 터지는 바람에 몸서리치는 경험을 했다. 그는 아팠던 것은 '약운'이지만 나온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만큼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

는 이유다.

저자들은 그의 시 가운데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맙다'라는 시를 인용한다. 그러면서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전한다. '이만큼이라도, 아직도 이렇게'의 마음을 견지한다면 일상의 순간은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될 것이다.

김형석 교수는 정년 이후 40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더 큰 세상을 만났다. 65세 이후부터가 진짜 인생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매일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일기를 쓰며 여느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생활한다. "관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 정신적 가치를 나눌 때 가치가 있는 거지"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가치에도 주목하라는 조언으로 들린다.

'마성의 미성' 팝페라 테너 임형주는 열두 살에 데뷔해 줄곧 대중과 호흡해왔다. 지난 2003년 열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카네기홀 사상 첫 세계 남성 성악가 중 최연소 독창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재

종로구에는 2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는데, 그가 설 곳이 없는 후배들을 위해 마련한 팝페라 전용홀이다. 특유의 미성 탓에 '성전환설' 등 루머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콤플렉스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콤플렉스에서 '꿈'을 제거한, '플렉스'한 면모는 마법 같은 순간을 노래하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국악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이희문은 독창적인 길을 걸은 소리꾼이다. 민요는 물론 디스코, 재즈, 헤비메탈 등 장르적 결합을 매개로 새로운 전통을 추구한다. 한편으로 "기본이 잘 다져져야 색다른 공연들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본기를 강조한다.

이밖에 '트로트의 전설, 영원한 오페' 남진을 비롯해 '중식 경력 50년의 대가' 여경래 셰프, '자유와 맛을 아는 천재' 김동규 바리톤, '아모르 파티'의 가수 김연자, '심장을 난타한 백발 아우라'에 빛나는 송승환 감독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삶의 속도는 안단테

김형석·스토리베리 지음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의 작품들에 어떤 수 없이 그의 삶이 묻어난다. 김형석의 음악은 따뜻하고 동시에 서글프다. 그는 현실의 고통을 아름답게 풀어내는 조연을 주는 어른이자, 눈부신 순간의 덧없음을 서글퍼하는 작가다."

작사가 김이나가 평한 김형석에 대한 이야기다. 김형석은 1990~200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음악 작곡가다. 김광석, 박진영, 이문세, 신승훈, 성시경, 김건모 등 유명 가수의 히트곡을 다수 작곡했으며 발라드곡 뿐 아니라 댄스곡, 영화 OST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프로듀싱하고 후배 음악인을 양성해왔다.

40여 년동안 대중음악계에 경이적인 흔적을 남긴 김형석의 인생철학과 영감의 원천, 피아노 연주곡과 함께 엮은 첫 에세이집 '삶의 속도는 안단테'가 출간됐다.

인생의 슬한 파고를 넘어가며 살아온 경험과 시간이 1500여 개의 멜로디로 탄생했고 그 멜로디가 이 책을 통해 활자와 뒀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책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음악의 시작에 관해 쓴 'Intro 나를 만든 음악, 내가 만든 음악', 쓰러진 실패의 경험과 깊은 슬럼프를 이겨낸 시간을 돌아본 'Verse 인생의 맛', 모든 음악은 사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며 써내려간 'Bridge 결국엔, 사람', 늘 지금이 절정이라 믿고 현재에 충실한 모습을 정리한 'Hook 한낱의 열기처럼 아직은 뜨겁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되는 'Outro 계속 좋아하고 싶어서'다.

장 끝마다 김형석이 쓴 노랫말 다시보기와 그가 만든 피아노 연주곡을 담았다. 책을 위해 만든 연주곡 'A Life'도 최초 공개한다. 그의 음악을 들으며 사랑의 순간과 이별의 아픔 등 지난 추억을 곱씹어 보기를.

〈스튜디오오드리·1만7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법대로 해!" 타인과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이 말에서 '법'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과연 법은 언제나 정의의 편일까. 한 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토대는 정말 법일까.

미국의 헌법학자 신디 L. 스캐치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법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는 다소 불편한 대답을 내놓는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믿어온 법이 오히려 시민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만들어놓은 질서에 기대고, 법이 내려줄 해답을 기다린다. 그러는 사이 시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처벌받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저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시민 됨'을 제안한다. 단지 더 나은 제도나 지도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질서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시민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천 수칙도 제시한다. '지도자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을 것', '공공 공간에서 교류할 것',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등 각 항목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일상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은 한국 시민은 법 이전에 존재하는 윤리와 감각으로 질서를 회복해낸 경험이 있다. 법은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복원하지도 못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지금, 새로운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목소리다.

〈위즈덤하우스·1만95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국이란 이름의 기억, 평화란 이름의 폐허 세트

아케이디 마틴 지음, 김지원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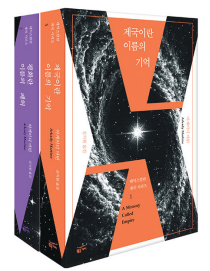
고전 제국의 항취와 미래적 상상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우주. 언어, 문화,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제국의 무기이자 경계가 된다. 아케이디 마틴의 '테익스칼란 제국' 시리즈는 그 경계선에 선 인물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거대한 제국 '테익스칼란'의 수도로 파견된 식민 기지 출신 외교관, 마히트 디즈마르의 시선에서 펼쳐진다. 그녀는 '이마고'라 불리는 기술을 통해 전임자의 기억과 인격을 계승한 채 제국의 수도로 파견된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기억이 끊긴 전임자의 죽음과, 시(詩)로 이루어진 제국의 언어, 그리고 자신이 결코 완전히 속할 수 없는 문화다.

시리즈 1권 '제국이란 이름의 기억'은 이질적인 존재가 중심에 가까워질 때 마주하는 균열과, 외부자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겪는 혼란을 정교하게 묘사한다.

2권 '평화란 이름의 폐허'는 이 고민을 제국 바깥으로 확장한다. 소통 불가능한 외계 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마히트와 주변 인물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갈등은 오늘날의 식민성, 경계성, 정체성에 대한 메타포로 작동한다.

역사가이자 도시계획가, 기후 정책 분석가이기도 한 저자의 면모는 이 독특한 세계의 설계도에 깊이를 더한다. 우주적 스케일의 서사 중심에는 인간의 언어와 감정, 소속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다. 이 시리즈가 휴고상 최우수 장편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둔'이나 '파운데이션'과 비견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황금가지·3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이 300mg입니다.

국산인양배추

건강기능식품 3000ml x 3병(9,000ml)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